

'환절기엔 인삼'... 수삼 판로 확대

전북농협, 소비촉진 이벤트
 “수삼값 하락으로 힘겨운
 농가들 돕기 위해 기획”
 임직원 인삼 특판 등 전개
 다방면 소비 촉진 유도키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은 인삼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국산 수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19일 농협 하나마트 전주점에서 ‘환절기 인삼이 짝이야’ 소비촉진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호 본부장, 신인성 조합장, 정미경 농협인근지구부장, 인삼농가 등이 참여해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수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삼 셰이크 시식 및 수삼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등을 실시했다.

농협은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2주간 수삼 합인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100G당 원삼(뽕통이 굵고 가지런한 모양)는 4,900원, 난발류(자유롭고 다양한 모양)는 3,900원에 판매한다. 워킹 스투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을 수



전북농협과 전북인삼농협은 인삼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국산 수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19일 농협 하나마트 전주점에서 ‘환절기 인삼이 짝이야’ 소비촉진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있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 4,000개 한도로 삼계탕 재료도 증정한다.

신인성 조합장은 “수삼가격 하락으로 힘겨운 인삼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직거래 장터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중국 수삼값이 막히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최근

국제유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업경영비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몇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되어 인삼재배농가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인삼을 통해 면역력도 올리고 지친 피로도 물리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농협은 계통 하나마트 등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해 왔고 ‘꿀맛같은 수삼’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임직원 인삼 특판 행사, 사무실 내 인삼차 마시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다방면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8월말 기준 시장 거래 표준가격인 4년근 750g 10뿌리는 평년 대비 29% 하락한 229,000원에 거래되고, 작년말 KCO인삼공사 기준 재고는 10년전 3배인 1조2,734억원으로 판로개척이 절실하다. /김윤상 기자

‘전북 경제, 중기에 달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데미호텔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라북도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와 현장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데미호텔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채정목 전북중소기업협회장 및 도내 업종별 중소기업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전북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 현장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송하진 도지사 초청 간담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경제는 중소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코로나 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경제는 중소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코로나 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금융서비스 차별화’

전북은행, 경기종합금융센터 개점행사
 수원역과 인접해 접근성 우수 편의성 향상



수원사에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종합금융센터에서는 RM(relationship manager) 직원을 적극 활용해 경기

남부 지역의 기업금융 지원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치 또한 수원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 정원호 노동조합 위원장, 이봉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수원시로 새롭게 이전한 경기종합금융센터는 전북은행 수도권 영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은행만의 특화 및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청렴·사고예방 출자증대 결의행사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9일과 20일 양일간 농협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및 농·축협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청렴농협 구현’, 사고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출자증대 동참’ 결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농협이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는 다짐을 위해 마련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청렴한 농협 구현은 국민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며, 전북농협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인권경영현장 선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지난 15일 기관 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진원의 실천 의지를 담은 ‘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진원 임직원을 대표해 인권경영현장을 낭독한 이현웅 원장과 신입사원 9인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며



사내 인권경영 체계 수립을 위해 솔선 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인권경영현장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기관’이 되

기 위한 경진원의 장기 계획에 따라 제정된 것.

선포식에서 이현웅 원장은 “세계적으로 인권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에게 주어진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인권·안전·환경·일자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KESCO 안심윤리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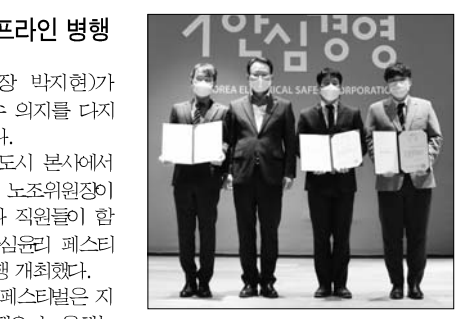
22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임직원의 윤리의식 준수를 다지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공사는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진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들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2021 KESCO 안심윤리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

3회를 맞는 윤리안권 페스티벌은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구성된 유니버설 안전예술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윤리경영 콘텐츠 공모전 시상, 선·후배 직원의 윤리경영 실천결의, 윤리준법 전문강의 등이 진행되며 전국 임직원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된다. 윤리안권 SNS소문내기 등 이벤트 또한, 안심윤리 페스티벌 홈페이지(www.kesco.or.kr)를 통해 진행된다. 박지현 사장은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윤리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행사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다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청탁금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에 힘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기관의 투명도와 국민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미래엔 더욱 푸르게
 서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스마트도시 전문가 초청 특강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19일 공사 새만금읍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전문가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강연에 나선 LG CNS 유인상 상무는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험도시 조성 사업의 민간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인상 상무는 이번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형 자족도시 세종’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참여 플랫폼과 데이터 공유, 강력한 추진 거버넌스 그리고 민·관·공기업 협력 기반 조성 및 통합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험도시 사례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도시의 지향점과 조성 방향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한·중·일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 온라인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를 1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디지털농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 혁신기술 현황과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국 농업과학원 순탄 부원장과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일본 도쿄대 관계자의 환영사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디지털 축산 연구동향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은 농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주도 혁신과 응용기술, 일본은 식물 표현체 분석기술 및 응용, 일본 디지털농업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국환 박사는 영상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비농사용 제조 로봇 과잉용 범용 로봇 플랫폼, 디지털 로봇 방제기 및 토마토 생육진단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농업 로봇을 소개했다. 축산환경과 김중복 연구관은 현재 개발 중인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 미래 디지털 축산기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중국은 디지털 농기계와 로봇기술을 시연하고 식물 병·해충 지능형 인지기능 등 시연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